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기업분석 | 2026.02.19

KOSDAQ | 소프트웨어와서비스

에프앤가이드 (064850)

금융정보서비스 기업에서 인덱스 사업자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상황

- 2024년 5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 1)주주환원: 주당 배당금 180원 및 배당성향 26%를 최저 기준으로 단계적 상향
 - 2)성장성: 2028년까지 매출액 연평균 15% 성장
 - 3)수익성: 2028년 ROE 18%(2023년 13.5% 대비 4.5%p 개선)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상황
 - 1)주주환원: 주당 배당금 2024년 220원(배당성향 61%), 2025년 260원(배당성향 29%)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 2)성장성: 인덱스 부문 호조로 목표 달성에 근접해 있으나, B2C 부문의 가시적 성과가 제한적인 점은 아쉬운 부분
 - 3)수익성: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2026년 ROE 16.3% 달성이 전망됨
- 전반적으로 충실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행 중. 다만 유휴 자산 처분을 통한 자본 효율성 개선과 B2C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이 남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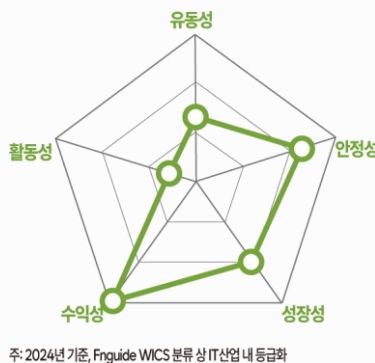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에프앤가이드는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체계화하여 제공
- 금융정보서비스 사업의 경쟁력이 굳건한 가운데 인덱스 사업 호조가 실적을 견인하며 2026년에는 매출액 414억 원(yoy 17%), 영업이익 133억 원(yoy 25%)이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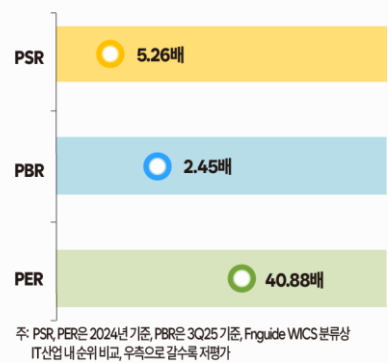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에프앤가이드 (064850)

Analyst 김선호 shkim@kirs.or.kr

RA 이희경 hk.lee@kirs.or.kr

KOSDAQ

소프트웨어와서비스

금융 데이터 솔루션 기업

2000년 설립된 금융 데이터 솔루션 업체.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 비중은 금융정보서비스 58%, 인덱스 27%, 펀드평가 5%, 기타 10%

금융정보서비스 기업에서 인덱스 사업자로

금융정보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이 굳건한 가운데 ETF 시장의 다변화 및 주식시장 상승으로 2025년 인덱스 사업 매출비중은 전년 대비 6%p 확대된 30%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 고정비가 전체 비용의 80%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영업이익 성장률(39%)이 매출 성장률(12%)을 크게 상회

충실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인덱스 사업 호조에 힘입어 2028년 목표인 매출 연평균 성장률 15%, ROE 18%를 향해 순조롭게 진행 중. 주주환원도 가이드라인을 준수. 유휴 자산 매각을 통한 자본 효율화 및 B2C 부문의 가시적인 성과는 남은 과제

두 번째 레벨업

2018년 와이즈에프엔 합병을 통해 영업이익률 20% 수준으로 한 단계 상승. 2024년부터 인덱스 사업 호조로 2026년 영업이익률 30% 수준 안착이 전망되며 밸류에이션 재평가 여지 충분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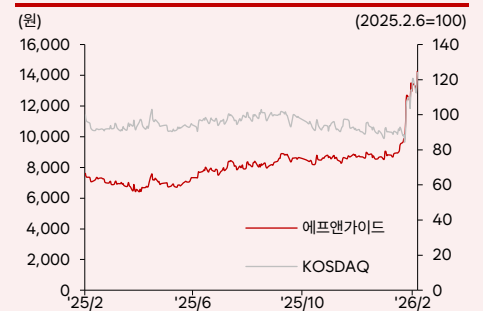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억원)	284	296	316	354	414
YoY(%)	11.4	4.1	6.8	12.0	16.9
영업이익(억원)	61	61	76	106	133
OP 마진(%)	21.4	20.5	24.2	30.1	32.1
지배주주순이익(억원)	79	78	41	102	119
EPS(원)	658	642	349	892	1,043
YoY(%)	45.3	-2.3	-45.7	156.0	16.9
PER(배)	9.7	10.3	22.4	9.7	13.4
PSR(배)	2.7	2.7	2.9	2.8	3.9
EV/EBITDA(배)	11.1	11.6	10.2	7.5	9.9
PBR(배)	1.4	1.4	1.4	1.4	2.1
ROE(%)	14.9	13.5	6.8	15.6	16.3
배당수익률(%)	2.8	2.7	2.8	3.0	2.1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2/12)	13,990원
52주 최고가	14,250원
52주 최저가	6,420원
KOSDAQ (2/12)	1,125.99p
자본금	61억원
시가총액	1,596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1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6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7억원
외국인지분율	15.83%
주요주주	화천기공 외 11인 47.88%
	김군호 외 2인 9.97%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588	686	973
상대주가	34.0	208	306

▶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영업이익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매출총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 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 기업 밸류업 공식 법안 주주가치 존중 기업문화로의 변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하는 기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며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



기업 개요

연혁

금융 데이터 솔루션 기업

에프앤가이드는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체계화하여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금융 정보 유통 및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설립 및 기반 구축기: 국내 금융 정보 서비스의 태동

에프앤가이드는 2000년 7월 금융 정보의 표준화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인 2000년 9월 온라인 리서치 자료 서비스인 FnGuide.com을 런칭하며 시장에 이름을 알렸고, 2003년에는 금융 모델링 자원 툴인 DataGuide를 출시하며 전문가용 데이터 시장의 기반을 닦았다. 이어 2004년에는 상장 및 등록기업 분석용 서비스 CompanyGuide를 출시했다.

사업 다각화 및 전문성 강화기: 지수 및 평가 사업으로의 확장

2000년대 중반부터는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전문 평가 및 지수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2006년 펀드평가업에 진출하고 2007년 매경-에프앤가이드 주가지수(MFI) 실시간 산출을 시작하며 인덱스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시장 통합 및 도약기: 와이즈에프엔 합병과 코스닥 상장

2010년대 후반은 에프앤가이드가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시기다. 2013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며 자본시장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고, 2018년에는 오랜 경쟁 관계였던 와이즈에프엔을 인수 합병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이 통합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 시너지를 창출했으며, 본사를 마곡동 사옥으로 이전하며 제2의 도약을 선포했다.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2020년 12월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며 명실상부한 금융 데이터 전문 상장사로 자리매김했다.

디지털 전환 및 AI 혁신기: 마이데이터와 금융 특화 AI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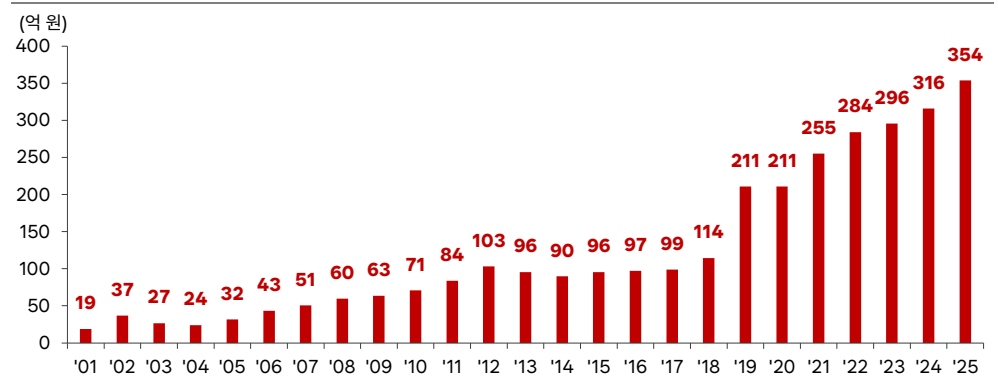
2020년대 들어 에프앤가이드는 전통적인 데이터 제공업을 넘어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테크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2021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취득하며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시장에 진출했고, 카카오뱅크와 금융 특화 자연어 처리 모델 공동 개발 MOU를 체결하는 등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2023년에는 창업자 김군호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으며, 금융 도메인 특화 언어모델인 KF-DeBERTa가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고 종목 감성분석 및 기업 뉴스 생성 관련 특허를 잇달아 취득하며 생성형 AI 시대의 금융 데이터 활용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2024년 5월에는 글로벌 인덱스 제공사 Indxx와 합작법인 Findxx를 설립하며 국내 지수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혁신의 결과, 2026년 2월 에프앤가이드 지수를 추종하는 ETF 순자산은 45조 원을 돌파했으며, 국내 주식형 테마지수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했다.

에프엔가이드 연혁

2000~2006 데이터 조회 중심 서비스	2007~2015 평가 및 컨설팅 분야 사업 확장	2016~ 사업 확대 및 외형 성장
2000 에프엔가이드 설립, 리서치 서비스 FnGuide.com 런칭 2001 삼성증권 리서치 DB 구축 프로젝트 수주 기업 가치평가 솔루션 ValueWise 출시 2003 파이낸셜모델링 툴 DataGuide 출시 2004 상장기업분석 서비스 CompanyGuide 출시 2005 최대주주 변경(가치네트 → 화천가계) 2006 펀드평가회사 등록(금융위원회)	2007 메릴-에프엔가이드 주가지수(MFI) 출시 2008 기업부설 금융공학연구소 설립 2009 국내 최초 원자재지수 발표 2011 자산평가전문회사(주)에프엔자산평가 설립 2012 한국예탁결제원 SEBRO 개발 수주 2013 코넥스 시장 상장 2015 ESG 데이터 제공 위한 업무제휴(ESG 모네타)	2018 신사육 준공 및 본점 이전(마곡동), (주)와이즈에프엔 합병 2019 (주)웹스가이드 설립, 해외데이터 서비스 시작(Refinitiv) 2020 코스닥 이전 상장 2021 통합 리포트 조회 모바일 앱 Retamin 출시 2022 금융 IT 전문 서비스 자회사 (주)에프엔데이터랩 설립 2023 해외 주식형 지수 자체 산출 및 설정 2024 최대주주 변경(화천가계)

자료: 에프엔가이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에프엔가이드 매출액 추이



자료: 에프엔가이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기업개요

3Q25 누적 매출비중

금융정보서비스 58%

인덱스 27%

펀드평가 5%

기타 10%

에프엔가이드는 금융정보서비스, 인덱스, 펀드평가 사업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에 필수적인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한다. 각 사업부는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방대한 금융 데이터라는 공통 자산을 기반으로 시너지를 발휘한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구성은 금융정보서비스 58%, 인덱스 27%, 펀드평가 5%, 기타 10%이다. 금융정보 서비스는 전통적 핵심 사업으로 안정적 수익 기반을 제공하며, 인덱스 사업은 국내 ETF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빠르게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기타 부문 매출은 일회성 성격으로, 채권평가업을 영위하는 (주)에프엔자산평가에 대한 지배력 획득 및 상실 과정에서 발생했다. 동사는 에프엔자산평가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의견결 과반을 보유했으나 이후 일부 처분으로 지배력을 상실했으며, 지배력 보유 기간인 2025년 1분기에만 해당 실적이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었다.

금융정보서비스

전체 매출의 58%를 차지하는 에프엔가이드의 핵심 사업부로,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부터 기업 재무 데이터, 컨센서스 등 금융 시장의 모든 정보를 총망라하여 제공한다.

- 리서치 및 컨센서스:** 'FnGuide.com'과 'WiseReport'를 통해 국내외 증권사의 리포트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과 예상 실적을 종합한 컨센서스 데이터를 제공한다.
- 전문가용 분석 솔루션:** 대표 상품인 'DataGuide'와 'Quantiwise'는 엑셀 기반의 분석 툴과 투자분석 프로그램으로,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 전문가 집단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 솔루션이다. 20년치 이상의 주식 및 재무 데이터를

신속하게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

- **B2B 데이터 공급:** 대형 금융기관의 내부 서버로 대용량 데이터를 직접 전송해 주는 'Data Feed'와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SI Project'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금융정보 주요 서비스

리포트	데이터	분석 도구
FnGuide.com	Data Feed	QuantiWise
WiseReport	ASP	DataGuide
Retamin	API	
종합 리서치 플랫폼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시장 관련 리포트를 체계적 분류/검색	방대한 금융데이터 주식, 채권, 펀드, 금융/통계 등 방대한 최신 데이터를 수집, 가공, 구축하여 DB, API 형태 및 시각화 된 ASP 형태로 제공	One-Stop 분석 도구 MS-Excel 기반의 데이터 조회 및 분석 툴로서 투자자에게 재무 데이터와 시장 정보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제공
전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빠르게 제공 실시간 리포트, 글로벌 리서치 리포트 제공	에프앤가이드가 보유한 20년 이상의 주식시장 및 산업, 기업, 경제 등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친숙한 엑셀을 기반으로 개인PC에서 데이터의 재가공 및 투자분석 등의 업무효율 극대화
주요 고객 증권, 운용 등 금융기관 및 일반투자자	주요 고객 증권, 운용, 연기금, 은행, 보험, 협회, 일반기업 등	주요 고객 증권, 운용 등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

자료: 에프앤가이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인덱스

전체 매출의 27%를 담당하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 투자 상품의 기초가 되는 지수(Index)를 개발하고 산출하는 사업이다.

2006년부터 민간 지수 연구개발을 시작해 현재 160여 개 ETF와 ETN에 기초지수를 공급하고 있다. 인덱스 사업의 핵심은 수집된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사용하는 자산운용사로부터 운용자산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수취하는 구조다.

주요 서비스는 ETF·ETN의 기초지수로 사용되는 ETP Index, 인덱스펀드의 벤치마크 지수, 그리고 기관 맞춤형 벤치마크 지수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머신러닝과 AI 기법을 활용한 테마 지수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채권지수와 해외지수로 영역을 확장 중이다. 지수 개발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자체 플랫폼 FnAIDX를 운영하여 신규 지수 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관리 비용을 낮추고 있다.

인덱스 사업 개요



금융기관 대상 맞춤형 지수 시뮬레이션 및 개발 & 실시간 제공



지수 시뮬레이션 및 리서치 서비스

고객사의 다양한 투자전략 백테스팅 및 타당성 검토와 분석

멀티팩터 모델 서비스

스타일별, 업종별 흐름 및 분석 결과 제공

인덱스 개발 및 실시간 제공 서비스

금융상품 추종지수, 벤치마크 지수, 내부 목적 지수 등 다양한 지수 개발 및 제공

디지털자산 지수 및 시그널 지수

디지털자산의 흐름을 추적하는 지수 및 금융스트레스 지수 등 경제 시그널 지수

자료: 에프앤가이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펀드평가

전체 매출의 5%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수익원 역할을 한다. 2006년 금융감독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로 등록한 이후 고유의 평가방법론에 따라 공모펀드를 평가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평가 및 자산 운용 컨설팅을 제공한다.

핵심 서비스는 공모펀드 평가, 기관 컨설팅, 투자 플랫폼으로 구분된다. 공모펀드 평가는 FnSpectrum, Data Feed, FundGuide.net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며, 운용사 선정과 판매 현황 분석 등 펀드 관련 종합 정보를 제공한다. 기관 컨설팅은 연기금의 기금 운용성과를 상세히 분석하여 수익률 제고와 효율적 운용방안을 자문한다. 투자 플랫폼은 펀드평가와 기관 컨설팅 관련 IT 지원을 담당하며 데이터 처리 및 서비스 개발을 수행한다.

종속회사

종속회사로는 핀테크스타트업 에프앤핀테크벤처투자조합 1호(지분율 98.91%)가 있다. 2024년 4월에 자본금 10억 원 규모로 설립되었으며, 아직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

주요 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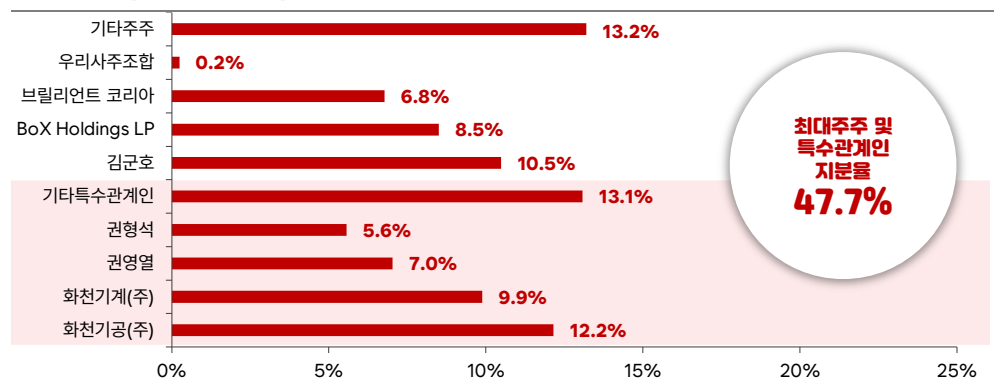
1대주주 화천기공 12.2%

최대주주는 2025년 3분기말 기준 화천기공(지분율 12.2%)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총 47.7%이다. 특수관계인으로는 화천기계(9.9%), 권영열(7.0%), 권형석(5.6%), 기타특수관계인(13.1%)이 포함된다. 화천기공과 화천기계는 국내 공작기계 제조업체로 화천그룹을 구성하고 있으며, 권영열은 화천그룹 오너, 권형석은 권영열의 아들로 화천기계·화천기공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5% 이상 주주로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BoX Holdings LP(8.5%)와 브릴리언트 코리아(6.8%)가 있다. 브릴리언트 코리아는 머니투데이, 뉴스1, 뉴시스, MTN 등을 보유한 미디어 지주사다. 창업자인 김군호 전 대표이사는 2025년 3분기말 기준 10.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5년 4분기 중 추가로 10.0%까지 축소했다. 김군호는 2000년 에프앤가이드를 설립하여 2023년 10월까지 23년간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최대주주인 화천그룹과 창업자 김군호 간 경영권 분쟁이 있었으나, 2024년 10월 31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화천그룹 측이 추천한 이사 선임안이 63% 찬성으로 통과되며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현재 에프앤가이드는 화천그룹의 안정적인 지배구조 하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주주 현황(2025년 3분기 말)



자료: 에프앤가이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ETF 시장 성장과 지수 사업자

2025년 ETF 순자산 297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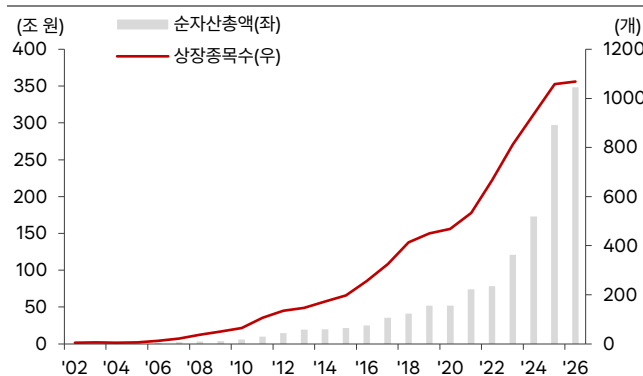
전년 대비 71.2% 증가

2026년의 폭발적 출발: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2025년은 상장지수펀드(ETF)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금융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완전히 정착한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국내 ETF 시장은 순자산총액 297.2조 원을 기록했으나, 이러한 기세는 2026년 들어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2026년 1월 말 기준 순자산총액은 348조 원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는 불과 한 달 만에 전년 말 대비 약 17%에 달하는 추가 성장을 이뤄낸 경이로운 수치다.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ETF 시장은 전년 대비 71.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ETF 시장의 성장률인 31.7%를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압도적 수치로, 상장 종목 수 역시 1,058개를 돌파하며 투자자들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시장의 성장을 주도한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대금이 34.9조 원에 달했다는 점은, 저비용과 거래 편의성을 갖춘 ETF로의 자금 전이가 완전히 안착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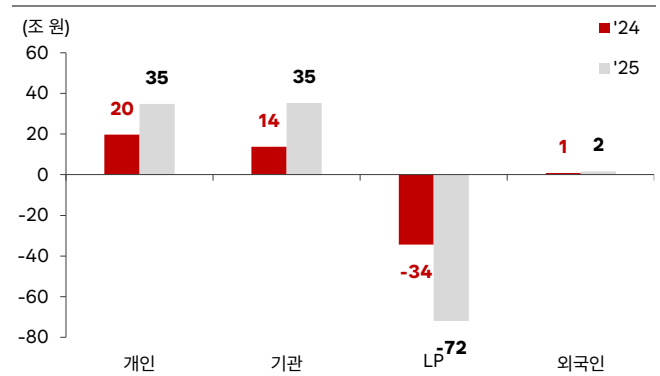
ETF 시장 규모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6년은 1월 말 기준

투자자별 ETF 순매수 대금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ETF 상품 다양화

연금 계좌 유입과 인컴(Income) 수요의 구조적 확산

ETF 시장이 구조적 안정기에 진입한 주된 배경에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계좌를 통한 자금 유입 경로의 확보가 있다. 장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연금 투자자들은 저비용 지수 상품을 선호하며, 이는 시장 전체의 하방 지지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산의 장기 체류를 유도한다.

특히 AI 등 빅테크 주식에 대한 투자 수요와 월 배당을 확보할 수 있는 커버드콜 상품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실제로 'KODEX 200타겟유틸리티커버드콜' 등 특정 상품에 연간 1.6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것은, 자본 차익과 정기적인 인컴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전략이 시장의 주류 트렌드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지수 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 공공·글로벌에서 민간 주도로

그간 국내 지수 시장은 공적 기관인 한국거래소(KRX)와 S&P, MSCI 등 글로벌 지수 거물들이 양분해 온 구조였다. 그

러나 ETF 시장이 300조 원을 넘어 348조 원 규모로 팽창하고 테마형·액티브 상품의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표준화된 지수를 공급하는 기존 사업자들의 틈새를 공략하는 민간 지수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시장대표 지수 중심의 패시브 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2025년 신규 상장된 173개 종목 중 업종 테마형이 69개(약 40%)를 차지하고, 액티브 ETF 역시 69개(약 40%)가 상장되는 등 상품의 성격이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정형화된 벤치마크보다 운용사 개별 투자 철학을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는 지수 산출 능력이 요구되며, 이는 방대한 데이터 인프라를 보유한 민간 사업자에게 거대한 기회 요인이 되고 있다.

2025년 ETF 상품유형별 신규상장 현황

구분	주식				채권			혼합 자산	부동산	원자재	기타	합계
	시장대표	업종섹터	전략	규모	국공채	회사채	혼합					
액티브	6	16	6	1	5	12	6	14	1	2	0	69
패시브	6	53	31	1	2	0	0	9	0	2	0	104
25년 합계	12	69	37	2	7	12	6	23	1	4	0	173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지수 산출의 기민성과 유연성, 민간 사업자의 핵심 경쟁력

결국 ETF 지수는 단순 수익률 추종을 넘어 ‘투자 전략의 설계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지수 사업자 내에서는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능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는 운용사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백테스트와 시뮬레이션 등을 적극 지원하며, 풍부한 레퍼런스를 통해 상품 출시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초 348조 원 시대를 맞이한 ETF 시장에서, 160여 개의 상장 레코드를 보유한 에프앤가이드와 같은 민간 사업자에게 시장의 기민성과 전문성 요구는 강력한 성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특히 소규모 ETF가 정비되고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과정에서, 검증된 지수 산출 역량을 갖춘 파트너로서 민간 사업자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포인트

1 흔들리지 않는 데이터 패권

에프앤가이드의 2025년 9월 기준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금융정보 서비스가 58%로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동사는 2000년 설립 이후 국내 금융 데이터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해 온 업체로, 금융기관 및 연구소에 필수적인 금융 정보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동사의 주요 서비스로는 종합 리서치 플랫폼인 FnGuide와 WiseReport가 있다. 이는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의 금융 시장 리포트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검색하는 서비스로, 전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제공하며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또한 투자 분석 도구인 QuantiWise와 DataGuide는 MS Excel add-in 기능을 통해 재무 데이터와 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자는 정형화된 재무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실시간 기업 뉴스 및 공시 데이터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에프앤가이드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흐름도



자료: googl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경제적 해자

1) 네트워크 효과

2) 고객 전환 비용

3) 무형의 자산

에프앤가이드의 핵심 경쟁력은 먼저 원천 데이터의 독점적 장악력에 있다. 에프앤가이드는 국내 거의 모든 증권사의 리포트와 컨센서스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투자자는 "여기만 보면 다 있다"고 인식하며, 다른 서비스를 찾기보다 에프앤가이드에 머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신규 진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수많은 증권사와 일일이 보고서 조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미 20년 이상 구축된 네트워크를 단기간에 복제하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시간 절감을 통한 기회비용 최소화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투자자가 각 증권사 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하며 리포트를 찾는 대신, 통합 플랫폼에서 키워드 하나로 검색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이러한 효율성은 고객이 경쟁 서비스로 전환할 유인을 낮춘다.

또 다른 동사의 경쟁력은 단순한 데이터 보유량이 아닌, 금융 생태계 전반에 걸친 표준 인프라로서의 지위에 있다.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은 에프앤가이드가 제공하는 컨센서스와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리포트를 작성하고 투자 결정을 내린다. 금융기관의 내부 분석 시스템과 쿼트 모델은 에프앤가이드의 데이터 구조에 최적화되어 있어, 데이터 제공업체를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시스템 재설계 비용과 데이터 불일치 리스크가 고객 이탈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더 많은 금융기관이 사용할수록 에프앤가이드 데이터가 사실상의 시장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는 기존 고객의 전환 비용을 더욱 높여 락인 효과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20년 이상 일관된 기준으로 정제하고 표준화한 시계열 데이터와 역사적 컨센서스 정보는 백테스팅과 장기 추세 분석에 필수적이다. 공개된 재무제표는 누구나 수집할 수 있지만, 과거 시점의 시장 기대치나 20년간 축적된 데이터 정제 노하우를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에프앤가이드의 금융정보서비스는 단순한 데이터 제공을 넘어 국내 금융시장의 표준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독점적 데이터 확보, 높은 전환 비용,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 자산은 동사의 경쟁력을 상당 기간 유지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정보서비스 매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수 사업의 구조적 레버리지

에프앤가이드 지수 기반 ETF 순자산 45조 원 돌파

에프앤가이드의 성장 전략 중 가장 파괴력이 큰 부분은 인덱스 사업이다. 지수 사업은 동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사용하는 자산운용사로부터 운용 자산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수취하는 구조이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인덱스 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27%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다.

동사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순자산 변화는 지수 사업의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준다. 2026년 1월 28일, 에프앤가이드 지수를 기초로 운용되는 ETF 순자산총액은 순자산 30조 원을 넘어선지 불과 3개월 만에 40조 원을 돌파했으며, 2월 12일에는 2주 만에 45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수 사업이 가파른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내 주식형 테마지수 시장에서 순자산 상위 10개 상품 중 9개가 에프앤가이드의 지수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사가 테마지수 설계 역량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했음을 입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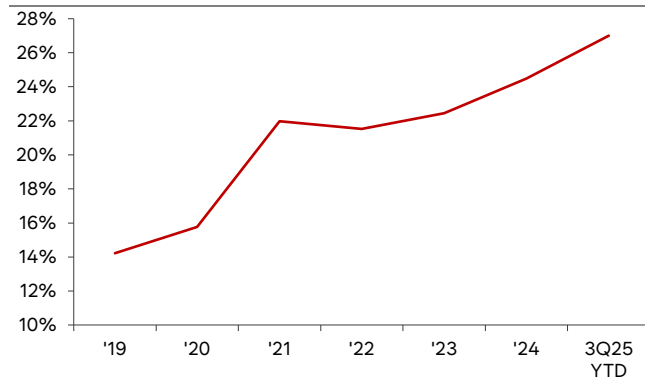
인덱스 사업의 급성장은 기업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수 사업은 한 번 개발된 지수를 추종하는 자산이 늘어나도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와의 계약은 주로 운용자산(AUM)의 일정 비율을 수취하는 정률 보수 형태로, 시장 성장이나 편입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AUM이 커지면 동사의 매출은 이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반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지수 산출에 필요한 원천 데이터 제공 비용 정도에 불과해, 매출 증가분의 대부분이 영업이익으로 직결된다. 동사는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수 개발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자체 플랫폼 FNAIDX를 구축했다. 플랫폼 자동화를 통해 신규 지수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고정비를 낮게 유지하면서도 다변화되는 ETF 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인덱스 사업 매출 확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이미 실적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실적 추이를 보면, 인덱스 사업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시기에 전사 영업 레버리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4년 인덱스 매출 비중이 22.4%에서 24.5%로 2.1%p 상승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되었다. 전사 매출은 3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 성장했으나 영업이익은 76억 원으로 26% 증가했다. 이에 영업이익률도 24.2%로 2023년 대비 3.7%p 상승했다.

2025년 잠정실적은 매출액 354억 원(yoy 12%), 영업이익 106억 원(yoy 39%)을 기록했다. 인덱스 매출 비중은 전년 대비 6.1%p 증가한 30.5%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 성장률이 매출액 성장률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인덱스 매출 비중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에프앤가이드 실적 추이

(단위: 억 원)

	'21	'22	'23	'24	'25E
매출액	255	284	296	316	354
인덱스매출	56	61	66	77	108
인덱스 매출 비중	22%	22%	22%	24%	30%
영업이익	51	61	61	76	106
영업이익률	20%	21%	21%	24%	30%

자료: 에프앤가이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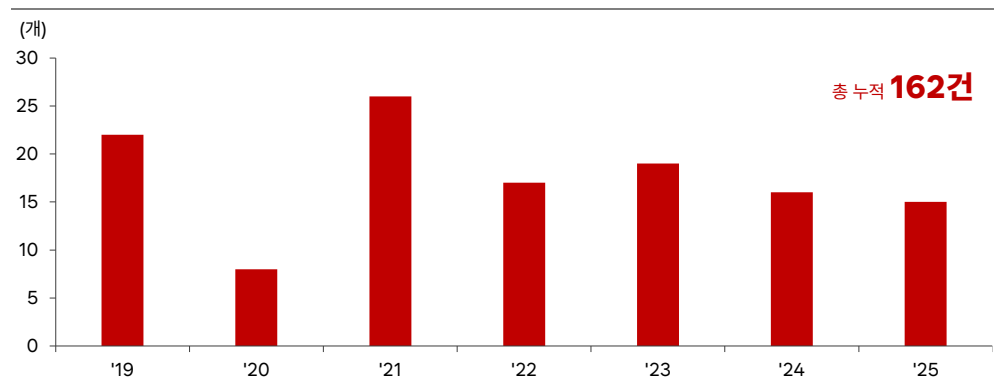
주: 2025년 매출액, 영업이익은 잠정실적 발표 수치이며 인덱스 매출은 당 리서치센터 추정치

2025년 시장에 상장된 173건의 ETF 중 에프앤가이드는 15건에 참여하여 전체 물량의 9%를 공급했다. 당사는 그동안 강점을 보이던 주식형 테마지수를 넘어 해외지수, 채권형 지수, 가상자산 지수 등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채권형 ETF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정교한 채권지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지수 사업자 Indxx와의 합작법인 Findxx 설립을 통해 국내 지수의 해외 상장도 추진 중이다.

에프앤가이드가 지수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배경에는 세 가지 핵심 경쟁력이 있다. 첫째, 20년 이상 축적한 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테마지수 설계에 필요한 모든 원천 데이터를 자체 보유하고 있어,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둘째, FNAIDX 플랫폼을 통한 자동화로 지수 개발 속도와 검증 역량에서 경쟁사 대비 우위를 확보했다. 셋째, 이미 160개 이상의 ETF 상장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자산운용사와의 협업 경험과 신뢰가 축적되어 있다.

향후 ETF 시장이 300조 원을 넘어 지속 성장하고 테마형·액티브 ETF 비중이 확대되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에프앤가이드의 인덱스 사업은 동사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에프앤가이드의 지수를 이용한 ETF 상장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

2028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1)배당성향 26%+알파

2)매출 연평균 15% 성장

3)ROE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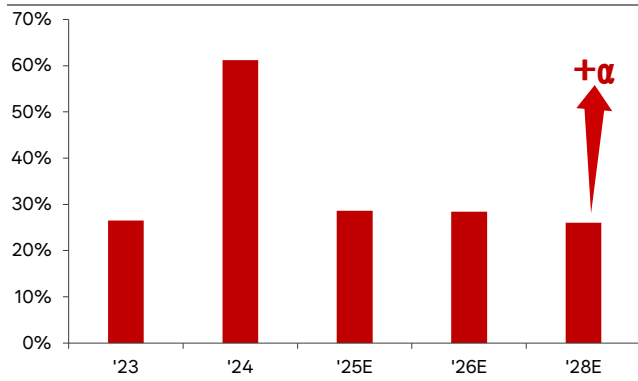
에프앤가이드는 2024년 5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의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제시했다. 주주환원 측면에서는 주당 배당금 180원, 배당성향 26%를 최저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을 약속했고, 성장성 측면에서는 매출액 542억 원(연평균 15% 성장) 달성을, 수익성 측면에서는 ROE 18%(2023년 13.5% 대비 4.5%p 개선)를 목표로 제시했다.

1)배당성향 26%+알파

가이드라인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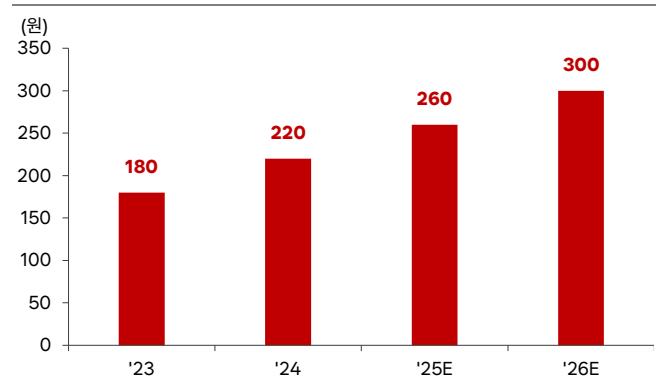
주주환원 측면에서 당사는 발표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2024년 주당 배당금은 220원으로 전년 대비 22% 인상했으며 배당성향 61.2%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주당 배당금을 260원으로 다시 18% 인상하며 배당성향 28.6%를 달성해 회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2025년 3월 자본준비금 17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함으로써 향후 배당 가능 재원을 확충하고 주주환원 지속성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의한 배당성향 추이 및 전망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25E 잠정치, 26E 당 리서치센터 추정치

주당배당금 추이 및 전망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25E 잠정치, 26E 당 리서치센터 추정치

2)매출 연평균 15%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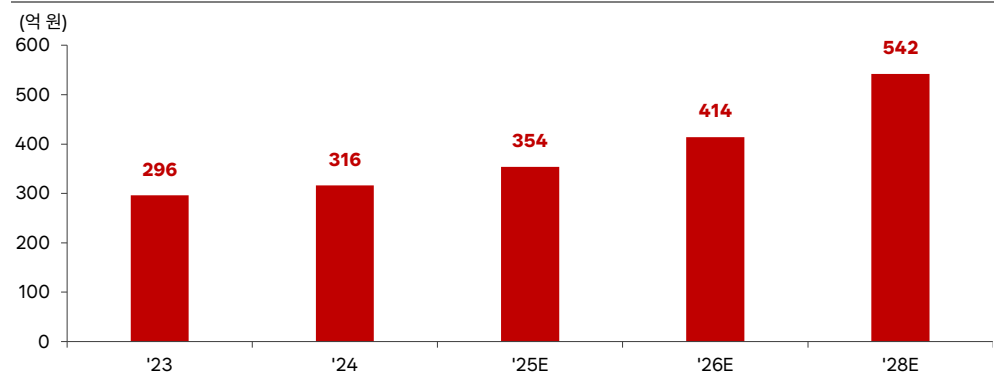
인덱스 부문 성장 고무적

눈에 띄지 않는 B2C 부문 성과

매출 성장 측면에서는 인덱스 사업의 호조가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프앤가이드 지수를 추종하는 ETF 순자산은 2026년 2월 45조 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4년 5월 글로벌 인덱스 제공업체 Indxx와 합작법인 Findxx를 설립하며 국내 지수의 글로벌 확장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해외 ETF 시장 진출과 글로벌 자산운용사와의 협업 가능성을 열어두는 전략적 투자로 평가된다.

반면 매출 성장의 또 다른 축인 B2C 부문에서는 아직 가시적 성과가 제한적이다. 2021년 출시한 개인 대상 리서치 보고서 서비스 Retamin은 현재까지 매출 기여도나 사용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당사가 보유한 방대한 금융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B2C 서비스 확장은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네이버·카카오 등 기존 포털의 금융 서비스와의 경쟁, 개인 투자자의 유료 서비스 전환 장벽 등을 고려할 때 보수적 전망이 필요하다. B2C 시장 확대는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보되, 단기적으로는 핵심 역량인 B2B 금융정보 서비스와 인덱스 사업에서의 성과가 매출 목표 달성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의한 에프엔가이드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에프엔가이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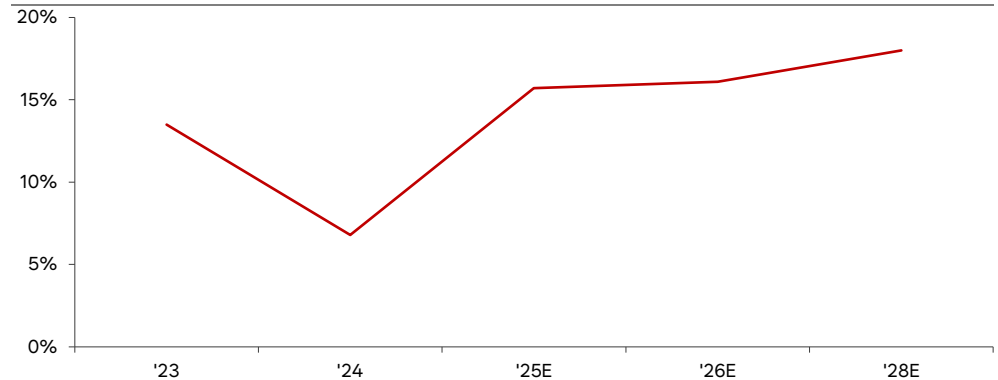
주: 25E 잠정치, 26E 당 리서치센터 추정치

3) ROE 18%

인덱스 사업 호조로 가능할 듯
자본 효율성에서는 아쉬움

ROE 개선 측면에서는 인덱스 사업 호조에 힘입어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적 성장에 따라 2025년 ROE는 15.7%, 2026년 16.3%가 기대되며, 인덱스 사업 성장이 이어진다면 2028년 목표인 18%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는 개선 여지가 있다. 에프엔가이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영등포에 위치한 상업용지 매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268억 원으로 총자산의 31%를 차지하는데, 매각이 지연되며 유 휴자산의 유동화가 늦어지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의한 에프엔가이드 ROE 추이 및 전망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25E 잠정치, 26E 당 리서치센터 추정치

결론적으로 에프엔가이드는 주주환원과 인덱스 사업 성장 측면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 중이나, 유 휴 자산 처분을 통한 자본 효율성 개선과 B2C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실적 추이 및 전망

2025년 실적 점검

2025년 실적

매출액 354억 원(yoy 12%)

영업이익 106억 원(yoy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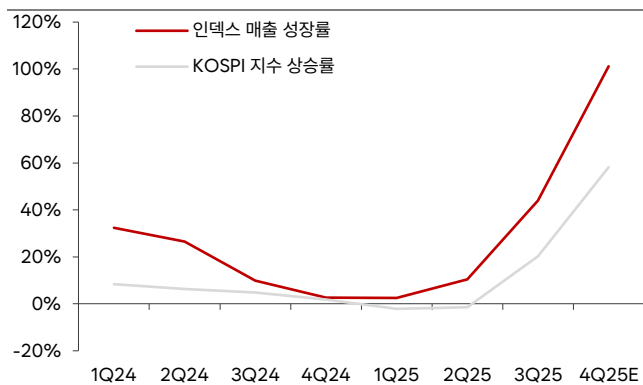
에프앤가이드 2025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 95억 원(yoy 20%), 영업이익 38억 원(yoy 60%), 영업이익률 40.1%(전년 동기 대비 10.1%p 상승)을 기록했다. 사업부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2026년 1월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 30% 이상 변동 요인으로 인해 연간 실적이 공시되었다.

사업부별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실적 상승 대부분을 인덱스 부문이 견인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4분기 일평균 KOSPI 지수가 3,977pt(yoy 58%, QoQ 23%)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AUM에 연동되는 인덱스 사업 실적을 끌어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정보서비스와 펀드평가 부문의 매출 변동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전분기 대비 가파른 매출 성장은 인덱스 부문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에프앤가이드 2025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354억 원(yoy 12%), 영업이익 106억 원(yoy 39%)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30.1%로 전년 대비 5.9%p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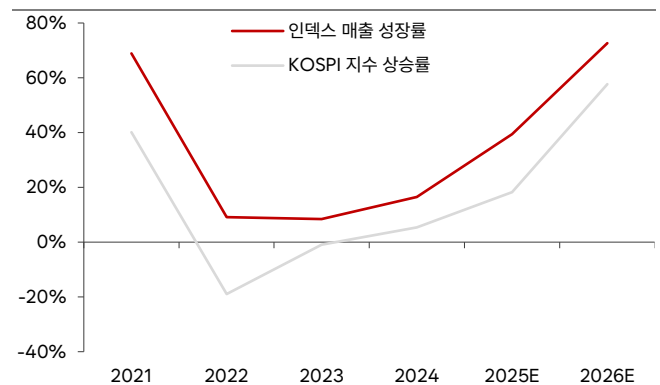
동사 실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역시 인덱스 부문이다. 인덱스 부문 매출액은 1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며, 지난 2년간 한 자릿수 성장에 머물렀던 전사 매출 성장률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렸다. 전체 비용의 약 80%가 고정비 성격을 갖는 동사 구조상 매출 성장률이 12%에 불과했음에도 영업이익이 39%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KOSPI 지수 성장률 대비 인덱스 부문의 매출 성장률이다. 지수 상승과 더불어 테마지수를 중심으로 한 NAV 기준 시장 점유율 상승, 반도체와 같은 특정 지수의 초과 상승 등이 겹치며, 동사는 2021년 이후 매년 지수 성장률을 상회하는 인덱스 사업 매출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분기 인덱스 매출 성장률 추이 및 전망 vs KOSPI 지수 상승률



자료: 에프앤가이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인덱스 매출 성장률 추이 및 전망 vs KOSPI 지수 상승률



자료: 에프앤가이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5년, 2026년 매출 성장률은 당 리서치센터 추정치

2026년 실적 전망

2026년 실적 전망

매출액 414억 원(yoy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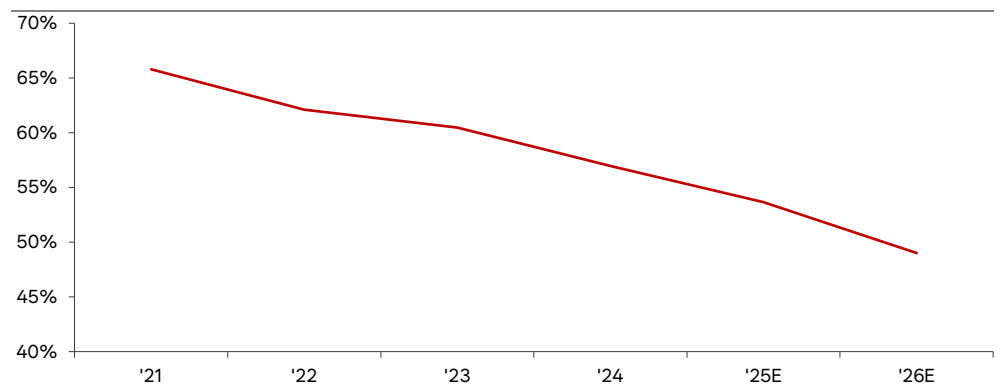
영업이익 133억 원(yoy 25%)

에프앤가이드 2026년 실적은 매출액 414억 원(yoy 17%), 영업이익 133억 원(yoy 25%)이 전망된다. 영업이익률은 32.1%로 전년 대비 2.0%p 상승이 예상된다. 2025년에 이어 인덱스 사업 부문이 전사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덱스 사업 매출 비중은 금융정보서비스에 버금가는 4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 추정 시 2026년 일평균 KOSPI 지수를 4,908pt로 가정했다. 이는 연초부터 2월 10일까지 KOSPI 증가를 일평균한 값으로, 지수 등락에 따라 당사 추정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인덱스 부문 매출 성장률은 KOSPI 지수 상승률보다 15%p 높을 것으로 가정했다. 과거 5년(2021~2025년) 에프앤가이드의 인덱스 부문 매출 성장률은 KOSPI 지수 상승률보다 평균 20%p 높았다. ETF 시장이 과거 패시브 중심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고 있어 에프앤가이드의 추가 성장 여지가 크나, 매출 규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과거보다 보수적인 성장률을 가정했다. 이에 따라 인덱스 부문 매출액은 1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고정비¹⁾ 비율 하락으로 지속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매출액 대비 고정비 비율은 53.7%로 전년 대비 3.3%p 개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26년에도 49.0%로 개선이 예상된다. 다만 2026년 영업이익률 개선 폭(+2.0%p)은 2024년(+3.7%p)과 2025년(+5.9%p)에 비해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비율 개선 효과가 있음에도, 동사가 2025년부터 인덱스 사업 확대를 위해 인력을 적극 총원하면서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3분기 기준 직원 수 157명인 동사는 2025년 15명 내외를 신규 채용했으며, 2026년에도 10명 내외를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인력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 속도를 다소 둔화시키나, 중장기적으로는 인덱스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액 대비 고정비율 추이 및 전망



자료: 에프앤가이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¹⁾ 고정비 항목: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통신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건물관리비, 기타영업비용

에프앤가이드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원)

구분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E	2021	2022	2023	2024	2025E	2026E
KOSPI 지수(일평균)	2,613	2,710	2,692	2,514	2,558	2,670	3,236	3,977	3,111	2,522	2,499	2,632	3,114	4,908
매출액	76	80	80	79	99	76	84	95	255	284	296	316	354	414
금융정보서비스	46	46	46	46	49	50	51	50	168	177	182	185	200	206
인덱스	19	20	20	19	19	22	29	38	56	61	66	77	108	186
펀드평가	4	5	5	6	5	5	4	7	14	19	19	21	21	22
솔루션구축/유지보수 및 기타	7	9	8	8	26	0	0	0	17	27	29	33	26	0
매출비중														
금융정보서비스	60%	57%	58%	58%	50%	65%	61%	53%	66%	62%	62%	58%	56%	50%
인덱스	24%	24%	25%	24%	19%	29%	34%	40%	22%	22%	22.4%	24.5%	30.5%	45%
펀드평가	6%	6%	7%	7%	5%	6%	5%	7%	6%	7%	6%	6%	6%	5%
솔루션구축/유지보수 및 기타	10%	12%	10%	11%	26%	0%	0%	0%	7%	10%	10%	11%	7%	0%
성장률 차이(yoy)	24%	20%	5%	1%	5%	12%	24%	43%	29%	28%	9%	11%	21%	15%
인덱스 매출 성장률	32%	26%	10%	3%	3%	10%	44%	101%	69%	9%	8%	17%	39%	73%
KOSPI 지수 상승률	8%	6%	5%	2%	-2%	-1%	20%	58%	40%	-19%	-1%	5%	18%	58%
영업이익	14	18	20	24	21	21	27	38	51	61	61	76	106	133
영업이익률	18.8%	22.9%	24.9%	30.0%	21.1%	27.1%	31.9%	40.1%	20.0%	21.4%	20.5%	24.2%	30.1%	32.1%

자료: 에프앤가이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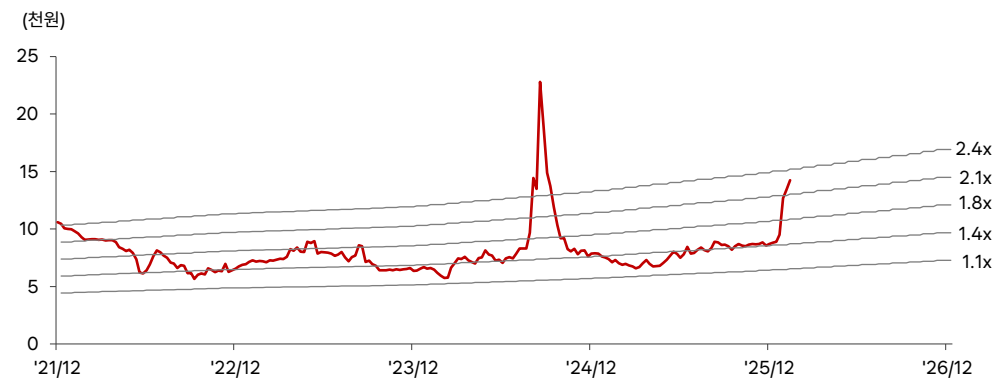
Valuation

1 재평가가 기대되는 이유

에프앤가이드의 현재 주가는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P/B 2.1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2022년 이후 형성된 동사의 역사적 P/B 밴드(1.1배~2.4배)의 중상단에 위치한 수치다. 단, 2024년 9월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시기는 이상치로 판단하여 밴드 산정에서 제외했다.

동사는 안정적 수익 창출 기업으로 기업가치 평가 시 통상적으로는 P/E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나, 2024년 당기손익 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31억 원과 관계기업 지분법평가손실 12억 원이 일회성으로 발생하여 순이익 기준 시계열 비교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자본가치 배수인 P/B를 주 밸류에이션 지표로 활용했다.

에프앤가이드 역사적 P/B 추이



자료: Quantiver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밸류에이션 재평가 근거

- 1) 수익성 개선
- 2) 새로운 매출 성장 동력 확보
- 3)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동사가 과거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영업이익률의 구조적 개선에 있다. 에프앤가이드의 영업이익률은 두 차례 변곡점을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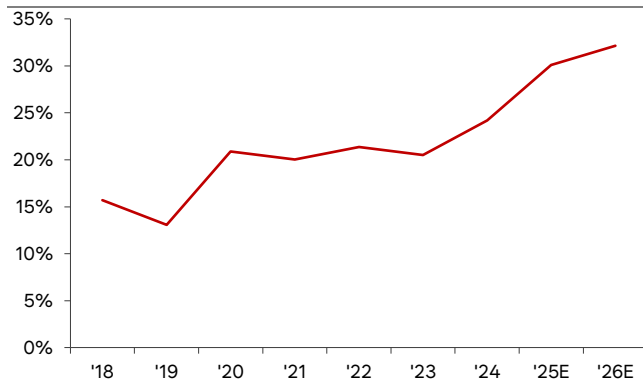
첫 번째 변곡점은 2018년 와이즈에프앤 합병이다. 합병을 통해 업계 내 과도한 가격 경쟁이 정상화되며 영업이익률이 안정화되었고, 2020년 이후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20% 이상을 유지했다.

두 번째 변곡점은 2024년부터 본격화된 인덱스 사업의 급성장이다. 인덱스 사업 매출이 가파르게 확대되면서 영업이익률은 2024년 24%, 2025년 30%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는 단순한 재무적 개선을 넘어, 금융정보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던 사업 구조가 인덱스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인덱스 사업은 높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갖춘 사업 모델로, 향후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영업이익률 개선은 ROE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 2024년 ROE 14.0%에서 2025년 15.7%, 2026년 16.3%로 지속 개선이 전망되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2028년 목표인 ROE 18%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P/B 밸류에이션은 ROE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ROE 개선은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핵심 근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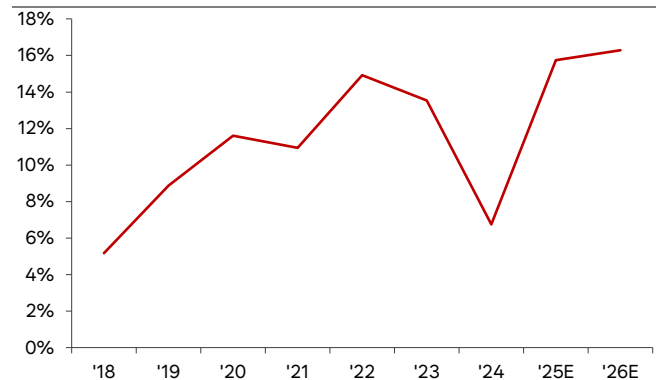
동사는 과거 대비 질적 개선을 달성했다. 첫째, 영업이익률의 구조적 상승(20% → 30%+)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둘째, 인덱스 사업이라는 고성장·고수익 사업 모델을 새로운 축으로 확보했다. 셋째,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금융정보서비스 단일 의존도를 낮추고 리스크를 분산했다. 이러한 펀더멘털 개선을 고려할 때, 동사는 과거 평균 밸류에이션 수준을 상회하여 거래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에프앤가이드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5년, 2026년은 당 리서치센터 추정치

에프앤가이드 ROE 추이 및 전망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5년, 2026년은 당 리서치센터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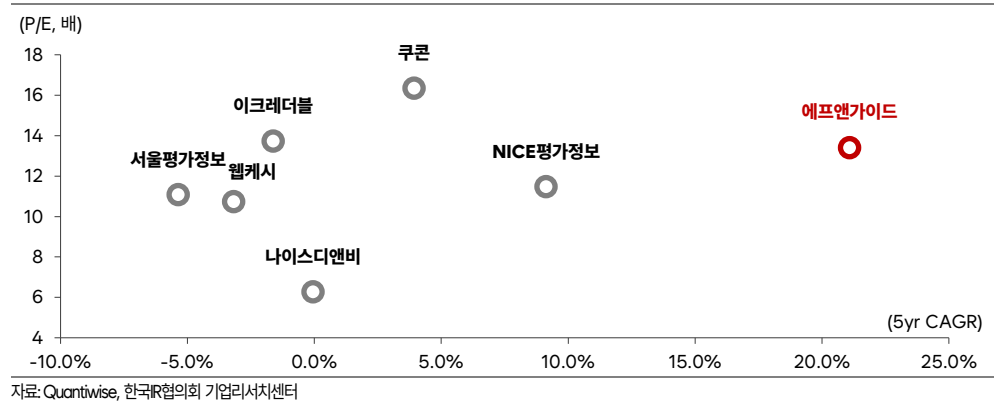
동종업체 대비 눈에 띄는 영업이익의 성장률

에프앤가이드의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은 14.0배로, 상장된 주요 동종업체 6개사(NICE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쿠팡, 이크레더블, 서울평가정보, 웹케시)의 평균 11.5배 대비 높은 배수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교 대상 기업은 컨센서스가 존재하며 데이터 가공 및 제공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를 선정했다.

일반적으로 PER 배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익 성장률이다. 에프앤가이드의 과거 5개년(2021~2026E) 영업이익 연평균 성장률(CAGR)은 21.1%로 전망되는데, 이는 동종업체 평균 0.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피어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이상의 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성장성 차별화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의 핵심 근거가 된다.

향후 KOSPI 지수가 당사 실적 추정 가점인 4,908pt를 지속적으로 상회하여 거래될 경우, 인덱스 사업 매출의 상방 가능성이 높아지며 실적 가시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확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영업이익률 성장률(5yr CAGR)과 2026년 예상 PER



동종업체 기업 valuation

기업명	종가 (원)	시가총액 (억 원)	매출액(억 원)							영업이익(억 원)							PER(배)		PBR(배)	
			'21	'22	'23	'24	'25E	'26E	5yr CAGR	'21	'22	'23	'24	'25E	'26E	5yr CAGR	25E	26E	25E	26E
에프앤가이드	13,990	1,596	255	284	296	316	354	414	10.2%	51	61	61	76	106	133	21.1%	16	13	2.3	2.1
NICE 평가정보	17,540	10,333	4,848	4,799	4,857	5,350	5,975	6,496	6.0%	726	716	653	868	1,043	1,124	9.1%	12	11	2.2	1.9
나이스디앤비	5,850	901	887	922	879	897	931	988	2.2%	169	155	142	158	159	169	0.0%	7	6	0.8	0.7
쿠콘	33,200	3,350	614	645	684	730	708	771	4.6%	168	200	166	166	188	204	3.9%	13	16	2.0	1.8
이크레더블	15,850	1,909	457	471	411	451	487	515	2.4%	182	193	126	150	157	168	-1.6%	15	14	4.5	4.0
서울평가정보	1,998	709	504	409	344	381	410	445	-2.4%	101	46	4	52	70	77	-5.4%	12	11	2.2	1.9
웹캐시	9,990	1,362	819	879	736	742	772	814	-0.1%	187	206	137	139	145	159	-3.2%	12	11	1.1	1.0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6년 2월 12일 종가 기준. 에프앤가이드는 당 리서치센터 추정치, 동종그룹은 FnGuide 컨센서스

글로벌 금융정보서비스 기업 valuation

기업명	종가 (달러)	시가총액 (억 달러)	매출액(억 달러)							영업이익(억 달러)							PER(배)		PBR(배)	
			'21	'22	'23	'24	'25E	'26E	5yr CAGR	'21	'22	'23	'24	'25E	'26E	5yr CAGR	25E	26E	25E	26E
S&P Global	397	1,187	83	112	125	142	153	165	14.7%	42	49	40	56	77	83	14.4%	22.4	20.3	5.0	3.6
Moody's	415	741	62	55	59	71	77	83	5.9%	28	20	21	29	36	40	7.0%	28.2	25.3	-	18.1
MSCI	522	384	20	22	25	29	31	35	11.1%	10	12	14	15	18	20	13.9%	30.4	26.8	-15.9	-19.2
Tradeweb Markets Class A	116	247	11	12	13	17	21	23	16.4%	4	4	5	7	10	12	26.5%	33.7	29.4	3.9	3.8
Factset Research Systems	202	75	16	18	21	22	23	25	9.0%	5	5	6	7	8	8	12.0%	11.8	11.5	6.4	3.5
Morningstar	154	63	17	19	20	23	24	26	9.0%	3	2	2	5	6	7	20.4%	16.4	14.2	-	4.0
MarketAxess Holdings	177	66	7	7	8	8	8	9	5.5%	3	3	3	3	3	4	2.2%	24.6	21.7	5.9	4.9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6년 2월 12일 종가 기준. 에프앤가이드는 당 리서치센터 추정치, 동종그룹은 FnGuide 컨센서스

리스크 요인

AI가 바꿀 투자 생태계

전통적으로 투자자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기업 분석 리포트를 읽고 투자 판단을 내려왔다. QuantiWise나 DataGuide 같은 Excel add-in 도구로 재무 데이터를 호출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이 표준 프로세스였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이러한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변화하는 투자 프로세스

생성형 AI의 딥리서치 기능은 이미 기업 분석 리포트 수준의 콘텐츠를 작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AI는 공시자료, 뉴스, 산업 리포트를 종합해 재무 분석과 밸류에이션을 수행하고, 투자자와 대화하며 논리를 정교화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읽는 것이 출발점이었다면, 이제는 AI에게 질문하고 AI가 실시간으로 생성한 분석을 기반으로 투자 판단을 내리는 형태로 프로세스 자체가 전환되고 있다.

데이터 분석 도구 역시 동일한 압박에 직면해 있다. QuantiWise와 DataGuide는 재무 데이터를 호출하는 Excel Add-in 기반 서비스이다. 그러나 AI가 자연어로 "최근 5년간 삼성전자의 분기별 영업이익률 추이를 경쟁사와 비교해줘"라는 요청에 즉각 데이터를 호출하고 시각화까지 제공할 수 있다면, 엑셀 함수와 매크로를 익혀야 하는 기존 도구의 효용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젊은 세대 투자자들은 Excel보다 대화형 AI 인터페이스에 더 익숙하며, 이들이 시장의 주류가 되는 시점에서는 투자 도구의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구조적 요인

다만 이러한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프로세스는 투자자들의 습관, 조직 문화, 그리고 축적된 워크플로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프앤가이드의 핵심 고객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수년간 구축해 온 내부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AI 기반 도구로 전면 교체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조직 내 저항도 만만치 않다. 또한 금융 산업의 보수적 특성도 변화 속도를 늦춘다. 금융기관들은 규제 준수, 데이터 보안, 감사 추적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새로운 AI 도구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시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

그러나 최근 FactSet, S&P Global, Morningstar 등 글로벌 금융정보서비스 업체들의 주가 급락은 시장이 이미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AI가 장기적으로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침식할 것이라는 우려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 현재 매출이나 이익이 당장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은 미래 성장성과 수익성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크게 낮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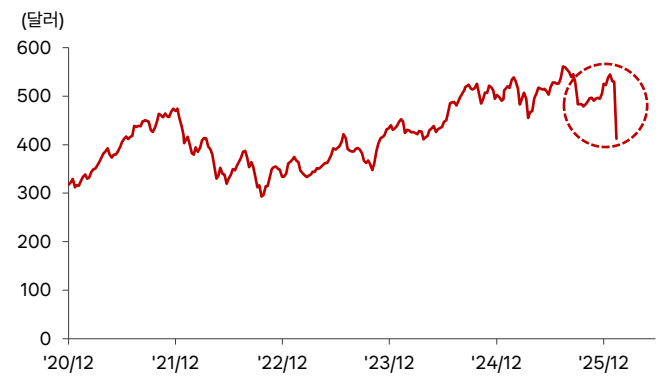
문제는 AI가 금융정보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AI가 기존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할지, 아니면 보완 도구로 자리잡으며 업계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지 예측하기 어렵다. 에프앤가이드 투자자는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투자 리스크임을 인식하고, 선부른 판단보다는 금융정보서비스 생태계의 변화를 지켜보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MSCI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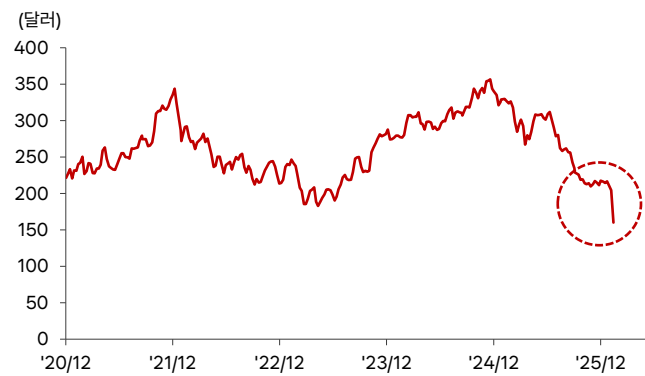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S&P Global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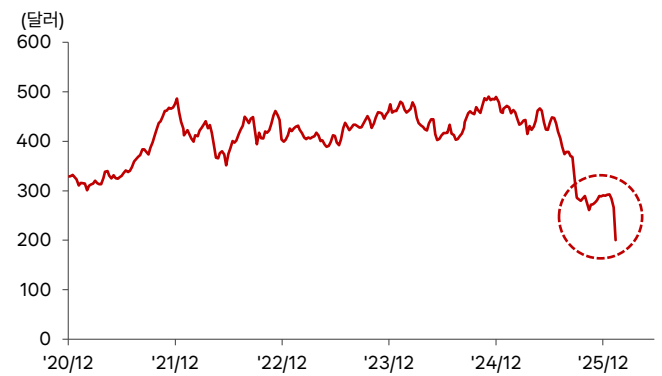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MorningStar 주가 추이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FactSet 주가 추이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84	296	316	354	414
증가율(%)	11.4	4.1	6.8	12.0	16.9
매출원가	0	0	0	0	0
매출원가율(%)	0.0	0.0	0.0	0.0	0.0
매출총이익	284	296	316	354	414
매출이익률(%)	100.0	100.0	100.0	100.0	100.0
판매관리비	224	235	240	248	281
판매비율(%)	78.9	79.4	75.9	70.1	67.9
EBITDA	76	76	90	121	148
EBITDA 이익률(%)	26.8	25.6	28.5	34.3	35.7
증가율(%)	17.6	-0.4	18.9	34.9	21.8
영업이익	61	61	76	106	133
영업이익률(%)	21.4	20.5	24.2	30.1	32.1
증가율(%)	18.8	-0.1	26.0	39.2	24.9
영업외손익	14	21	-27	10	3
금융수익	33	27	15	14	6
금융비용	42	21	43	4	4
기타영업외손익	24	15	1	-0	-0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12	6	-11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87	88	38	116	136
증가율(%)	40.5	0.3	-56.9	207.6	16.6
법인세비용	8	11	-3	14	16
계속사업이익	79	77	41	103	120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79	77	41	103	120
당기순이익률(%)	27.9	26.1	13.0	29.0	29.0
증가율(%)	45.3	-2.9	-46.8	150.4	16.9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79	78	41	102	119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70	67	66	116	95
당기순이익	79	77	41	103	120
유형자산 상각비	9	9	7	8	8
무형자산 상각비	6	6	6	7	7
외환손익	2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20	-5	-17	6	-40
기타	-6	-20	29	-8	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5	55	13	11	-16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9	26	-5	8	-9
유형자산의 감소	0	0	1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6	-1	-3	-6	-7
기타	-40	30	20	9	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1	-132	-108	-76	-30
차입금의 증가(감소)	-26	-6	-76	-50	0
사채의증가(감소)	0	-84	-11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15	-21	-20	-25	-30
기타	-10	-21	-1	-1	0
기타현금흐름	-2	-0	1	13	0
현금의증가(감소)	-39	-11	-28	64	49
기초현금	130	91	80	52	116
기말현금	91	80	52	116	165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유동자산	290	458	429	481	581
현금성자산	91	80	52	116	165
단기투자자산	145	79	78	66	66
매출채권	12	10	8	7	8
재고자산	0	0	0	0	0
기타유동자산	42	289	290	292	341
비유동자산	695	481	422	406	407
유형자산	136	130	125	123	122
무형자산	184	180	165	158	151
투자자산	100	153	111	104	113
기타비유동자산	275	18	21	21	21
자산총계	985	940	851	887	988
유동부채	205	342	230	190	205
단기차입금	32	24	0	0	0
매입채무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173	318	230	190	205
비유동부채	220	8	2	3	4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208	3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2	5	2	3	4
부채총계	424	349	233	195	211
자배주주지분	559	588	616	688	773
자본금	60	60	61	61	61
자본잉여금	264	264	275	275	275
자본조정 등	-38	-60	0	0	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4	-6	-7	-7	-7
이익잉여금	276	328	287	359	444
자본총계	561	590	618	691	777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F	2026F
P/E(배)	9.7	10.3	22.4	9.7	13.4
P/B(배)	1.4	1.4	1.4	1.4	2.1
P/S(배)	2.7	2.7	2.9	2.8	3.9
EV/EBITDA(배)	11.1	11.6	10.2	7.5	9.9
배당수익률(%)	2.8	2.7	2.8	3.0	2.1
EPS(원)	658	642	349	892	1,043
BPS(원)	4,625	4,869	5,400	6,033	6,776
SPS(원)	2,353	2,449	2,710	3,103	3,628
DPS(원)	180	180	220	260	300
수익성(%)					
ROE	14.9	13.5	6.8	15.6	16.3
ROA	8.2	8.0	4.6	11.8	12.8
ROIC	17.1	11.8	14.3	18.8	23.3
안정성(%)					
유동비율	141.9	134.1	186.2	252.8	282.8
부채비율	75.6	59.2	37.6	28.3	27.1
순차입금비율	11.6	13.9	3.6	-11.5	-16.5
이자보상배율	4.4	4.5	11.5	24.9	38.8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3	0.3	0.4	0.4	0.4
매출채권회전율	14.8	26.5	34.5	46.6	54.5
재고자산회전율	N/A	N/A	N/A	N/A	N/A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에프앤가이드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2.19	에프앤가이드-금융정보서비스 기업에서 인덱스 사업자로
2022.07.06	에프앤가이드-금융 정보 플랫폼으로 위상 강화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가치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